

아득하여라,

독일 고속열차는

가을 들뜬에 사랑을 뿌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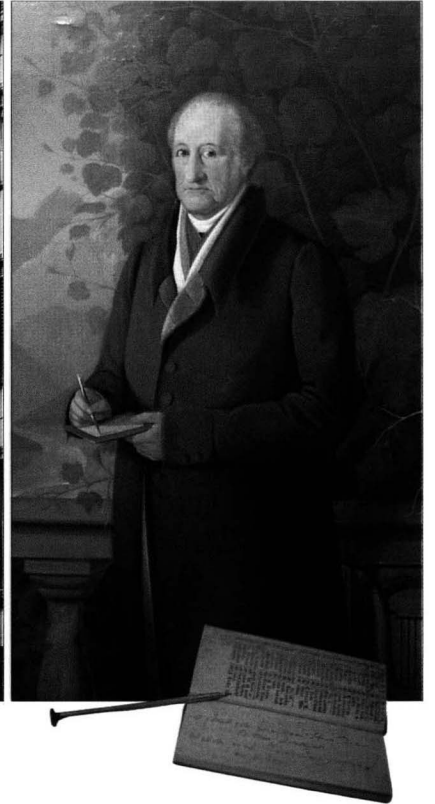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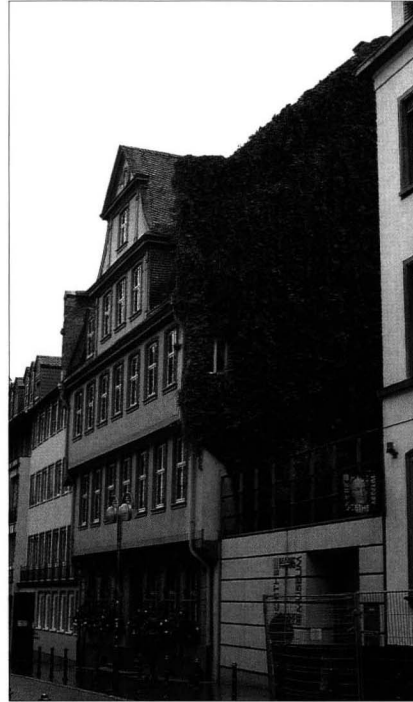
그 사랑을

가랑비가 적신다네...



GOETHE HAUS  
GOETHE MUSEUM

»» 괴테하우스 박물관 심벌



1. 괴테하우스 전경. 푸른 외벽이 돋보이는 건물은 박물관이며 왼쪽 건물이 생가이다.
2. 괴테가 70세 넘었을 때의 초상과 초상 속의 괴테가 들고 있던 수첩과 펜. 모두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3. 괴테 생가의 여러 방 중의 하나. 이곳에서 괴테는 《파우스트》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다. 침대는 괴테가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괴테가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사용했던 인장과 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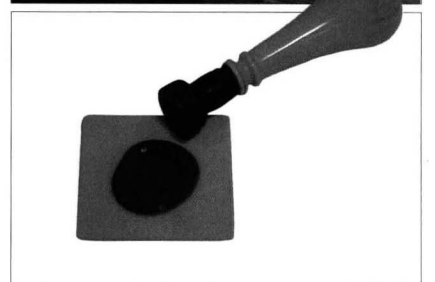
여행을 좋아했던 괴테는 말년에도 마차에 흔들려 이국풍경을 찾아다녔다. 그는 마차에서도 글을 썼던 소설가이자 유별난 여행광으로 지금까지 회자된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의아스럽지만 그가 에쿠스나 체어맨 수준의 안락함을 얻기 위해 특수 제작된 마차를 타고 다녔다는 기록을 확인하면 마차 여행을 하면서도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금세 이해된다. 이런 점을 보면 그는, 귀족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말년까지 글과 더불어 살기 위해 여행을 즐겼던 영원한 현역으로 규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독일의 괴테가도는 그가 태어났던 프랑크푸르트에서부터 뮌헨 라이프치히 베를린에 이르는 6,7백 킬로미터의 장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길들 곳곳에 괴테의 문학적 체취가 배어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그가 다녔던 라이프치히 대학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 고뇌를 담은 '연애소설의 고전'으

로 불린다. 가벼운 듯하면서도 가볍지 않고, 무거운 듯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괴테 문학의 중요한 텍스트인 것이다.

비 내리는 프랑크푸르트 도심의 괴테 하우스를 둘러본 후 서걱거리는 빵 한 조각을 씹어먹고 비가 수긋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곳을 떠날 때는 뭔가 미진한 기분이었다. 이게 다는 아닐 텐데, 이게 다는 아닐 텐데 했던 것인데, 괴테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느 골목길의 다세대 주택 같은 모습으로서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문학적인 모습인 것은 괴테 하우스의 건물 벽을 가득 덮은 담쟁이과의 잎사귀들이었다. 녀석들은 푸르렀고, 낮게 내려앉은 독일의 우중충한 늦가을 하늘과 제법 잘 어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테 생가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달려왔던 기자에게는 '이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했다. 무작정 라이프치히행 열차를 타기 위해 중앙역으로 달려간 것도 그 탓이었다.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 되면 대안을 찾아야 하는 법이다.

열차가 출발하기 2분 전 기차표를 끊는 데 성공한 기차는 고속열차 이체ICE에 올라 시속 200킬로미터의 동체 속에 몸을 맡겼다. 기차는 새마을열차가 시속 60킬로미터로 낮춰 달리는 듯한 안락함과 함께 차례차례 독일의 늦가을 들녘을 슬라이드처럼 비춰 주었다. 괴테가 마차에 올라 덜컹거리며 시속 4.5킬로미터로 달렸던 그 길을 200킬로미터의 속도로 내달렸지만 유럽의 가을을 소홀히 보여주지





5. 시속 2백킬로미터로 내달리는 프랑크푸르트-라이프치히 행 괴테가도의 전원풍경이다. 대형 트레일러는 앞으로 앞으로 내달리지만 젖소들은 그저 안식의 시간을 보낼 뿐이다.

는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체의 흔들림 속에 독일 들판을 자세히 보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괴테는 그렇게 흔들리며 독일의 풍경을 아날로그 식으로 보고 느꼈겠지만, 열차 안의 사람들은 '보았다'고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적인 감상에 젖었을 뿐이다. 그래서 무엇이 남는가. 기껏해야 상상의 옷을 입히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우월한 것은 어느 쪽에도 없고, 무엇이 빠른 길이며 깊이 있는 길인가 역시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삶이며 문학이며 풍경이라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풍경들의 목록은 기차가 중간 중간 섰던 역, 기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의 표정, 홀스타인 젖소들의 느릿한 걸음걸이, 단 하루라도 살아 보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는 붉은 색 지붕의 집들, 낮은 구릉 위에서 서 있는 네덜란드식 풍차, 끝도 없이 길어 보이는 화물 열차와의 교행, 멧은 듯이 느리게 흐르는 실개천 같은 강, 기차와 나란히 달리다가

곧 사라지는 좁은 길 속의 자동차들, 그 모든 사물들을 적시던 가느다란 빗줄기와 이불처럼 내려앉았던 구름들이다. 사실, 이게 다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독일 풍경이 아니라 그 옛날 괴테가 보았고, 괴테가 느꼈던 풍경들이므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여전히 죽음으로써 증명했던 사랑의 아련함과 젊은날의 초상을 떠올려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 사랑은 모든 것에 앞선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역시 그랬다. 괴테는 일찌감치 그 진실을 알아 라이프치히 대학을 다닐 때의 친구가 사랑의 기쁨과 슬픔에 젖어 지낸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사랑 얘기가 오늘의 괴테가도를 만들어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기자가 이체에 몸을 싣고 한 낮의 독일 맥주에 취해가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했으리라.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절박해 그때의 소설로만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네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도 그렇고, <밭가락이 닳았다>가 그렇고, <메밀꽃 필 무렵>이 그렇고, 모든, 이 땅의 사랑을 담은 소설들이 그렇다.

하지만, 기차 차창 밖으로 훑훑 지나쳐가는 저 전원풍경 속에서 단 하룻밤이라도 잠들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꿈 같은 꿈을 지나쳐 괴테의 청춘 공간 라이프치히 대학에 들어섰을 때 괴테의 흔적은 단지 그의 동상만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또한 그를 추억하고 기리는 사람은 10평 남짓한 기념품 가게의 주인할머니뿐이었다. 그는 괴테의 책과 괴테의 문학적 성가를 기렸지만 다른 이들은 괴테가 법대를 다녔는지를 몰랐고, 괴테의 동상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하여, 괴테가 다닌 법과대학 건물을 영영 찾지 못한 것은 기자가 부지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어떤 건물도 괴테의 흔적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변명이 가능하다.

기자는 라이프치히 역 앞에서 룩셈부



6. 라이프치히대학 안에 서 있는 괴테 동상.

7. 라이프치히의 15세기 무렵을 미니어처화한 모습이다. 라이프치히 대학 안의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이 사진을 찍는 동안 '촬영불가'를 외치는 박물관 책임자와 기자 사이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르크 노인이 벌여놓은 리어카 좌판에서 소시지를 사 먹으며 빗 속의 허기를 달랐다. 역 광장 앞은 바그너의 거리였고, 그 위쪽 길은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야 했다. 어둠을 뚫고 내달리는 기차 차창 밖으로 무엇이 보일까. 아마도, 그것은 어떤 사물이 아니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와 있는 마지막 구절일 터였다.

‘낮 12시에 베르테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밤 11시경, 베르테르는 법무관과 그의 아이들은 영구 뒤를 따라갔습니다. 알베르트는 장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테의 생명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상두꾼들이 영구를 메고 갔습니다. 성직자는 한 사람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베르테르는 자신을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길 때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리하여 한때 독일에서는 젊은이들이 노란조끼를 입고 다니는 것이 유행인 적도 있었지만 기자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라이프치

히를 오가는 동안 노란 조끼를 입은 젊은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오늘의 독일에 젊은 베르테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 터, 기자는 다시 프랑크푸르트의 괴테생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겠다고 작정했다.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기차 시간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기차 일행은 역 지하상으로 내려가 과일 가게에서 두 봉지의 과일을 샀고, 어렵사리 피자가게를 찾아내 그곳에서 다시 허

기를 채웠다. 200년도 훨씬 지난 저 너머 시대의 사랑을 확인하는 데도 허기를 달래는 일처럼 소중한 것은 없었다.

다시, 마차, 아니 독일 고속열차 이체에 몸을 얹었을 때 괴테가 오갔던 그 길들 속에는 어둠만이 고여 있었다. 너무 짧았던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치히 사이의 오고감, 그래도 차창 밖의 먹빛이 답답하지는 않았다. 그 먹빛 속에 한때의 치열한 사랑이 얼룩져 다가왔으므로. ■■

괴테가도는 \_\_\_\_\_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에 이르기까지 괴테의 자취가 깊게 배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프랑크푸르트를 시작으로 폴다-아이제나흐-에르푸르트-바이마르-제나-라이프치히 등 7개 지역. 폴다는 괴테가 여행을 떠나기 전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인생을 얘기했던 곳으로 유명하고, 바이마르는 그가 정치가로 활동했던 무대인 동시에 생을 마감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라이프치히는 괴테가 대학을 다녔던 곳이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모델로 등장하는 샤를로테 부프를 사랑했던 열병의 도시이기도 하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은 \_\_\_\_\_ 서간체 소설의 형식으로 1771년 5월 4일부터 1772년 12월 23일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의 일을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한 괴테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고전이다. 주인공 자신인 베르테르가 친구인 빌헬름과 사랑하는 연인 로테에게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인 알베르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괴테가 다녔던 라이프치히 대학사절이 많이 투영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